국가공원법 제정 추진

제도개선시민위, 15일 워크숍 '100대 개혁의제' 선정

국립공원의 법, 제도,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100명의 시민이 작성한 100대 개혁의제가 15일 선정된다. 또 극립공원의 총체적인 보존 보호를 위한 해결책으로 국가공원법 제정도 추진된다.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대표 원택, 조계종 총무부장 · 이하 '공원개선위')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립공원 100대 개혁의제 작성을 위한 100인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스님, 시민단체 대표, 공원 및 환경전문가, 정치인, 지역주민, 일반국민 등 국립공원 관련 대표자들의 토론과 협의에 의해 국립공원 100대 개혁의제가 작성된다. 특히 개혁의제는 사찰 문화유산 및 주변경관 등을 정책적으로 보존하는 국립공원 제도개선운동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여 교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개혁의제는 △국립공원을 국토 및 환경보전의 최후 보루로 인식 확대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보호대책 수립 △역사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홍보 △친자연적 시설물 조성 및 관리방안 마련 등이다.

이와 함께 △이용행태를 자연친화적 탐방으로 전환 △생태계 및 역사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참여확대 △공원관리예산 국가 100%지원 확보 △지역주민의 친환경적 생활전환 △국립공원중심 국토 생태축 연결 등의 방안이 채택된다.

공원개선위는 국립공원의 제도개선과 국민들의 관심고조를 위해 올해말 국가공원법안을 작성하고, 2002년 대국민 홍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공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새롭게 지정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키로 했다.

공원개선위 대표 원택스님은 "국립공원 100대 개혁의제 선정은 국립공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키 위한 것"이라며 "개혁의제가 선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수정해야 할 국립공원 관련 정책연구와 정부정책 홍보에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원개선위는 8~10월 설악산, 속리산, 가야산, 내장산, 경주지역 등에서 탐방객을 대상으로 전통사찰의 가치평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스님과 어린이들이 '자연환경 보전' '사찰문화환경보전' 문구를 새겨넣은 대형가위로 북한산 관통도로를 자르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공연했다.

북한산 관통로 반대 퍼포먼스

회룡사 18일 도로저지 산사음악회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에 반대하는 시민연대'는 8일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집회와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의정부사암연합회 소속 스님들도 동참한 퍼포먼스는 건교부와 도로공사가 북한산 관통도로를 건설한 후, '자연환경보전 가위' 와 '사찰문화환경보전 가위' 를 든 스님과 아이들이 이 도로를 자르는 내용으로 펼쳐졌다.

시민연대는 한국도로공사가 추진중인 일산~퇴계원간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이 수도권의 하나뿐인 국립공원과 수락산, 불암산의 자연환경과 사찰 수행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우회노선의 채택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했다.

한편 도봉산 회룡사는 18일 오후 2시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산사음악회' 를 연다.

김재경 기자

광주 증심사 계곡 골프연습장 추진

주민들 구청 항의방문

광주 무등산의 운림온천 개발로 인근 광륵사, 문빈정사 등의 사찰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증심사 계곡 입구에 골프연습장 건설이 추진돼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시민단체 대표와 동구 운림동 주민 30명은 6일 무등산 증심사 계곡에 추진중인 골프연습장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 허가 관청인 동구청을 항의 방문, 시민홍보활동을 벌였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등의 회원들은 이날 "무등산 자락의 운림동지역에 추진중인 골프연습장을 허가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초등교 다보탑 문양철거 기독교계 또 억지요구

최근 원주경찰서 경승실의 불상봉안을 반대하는 기독인들의 시위가 벌어진 데 이어, 이번엔 기독인들이 한 초등학교 건물에 설치된 다보탑 문양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24일 교사를 새로 신축해 옮긴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초등학교는 5층 건물 2개동 측면에 다보탑과 석가탑 문양을 설치했다. 수지읍 기독교연합회는 즉각 학교와 교육청에 진정서를 보내고 "공공건물에 특정종교의 문양을 설치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특정종교를 각인시키려는 것"이라며 문양제거,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는 억지를 부렸다.

이에 대해 학교측과 교육청은 "학교건물 문양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자제를 요구했으나, 기독교연합측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재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김주일기자

종교시민단체 '反戰 평화운동' 전개

10여개 불교단체 동참

아프간 난민돕기 모금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 · 시민단체들이 전쟁반대와 평화실현을 위한 연대기구를 설립, 반전평화운동에 나선다. 이들 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한 구호기금 모금활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실천승가회, 재가연대, 평불협, 좋은벗들 등 10여개 불교단체와 700여 종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준비위원회'는 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쟁반대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선언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미국의 보복공격으로 죄없는 아프간 국민의 희생이 커져가고 있다"며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져오던 반전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10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반전평화 시국선언대회 및 평화대행진'을 시작으로 전쟁중단과 평화실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아프간난민 지원을 위한 전국규모의 기금모금 운동을 전개했다. (02)747-8500 김재경 기자

부산지역 50개 신행단체 입주건물 법원경매 팔려

'집없는 설움' 겪는다

통도사부산포교원(주지 심산)이 입주해 있던 성원주차빌딩이 8일 실시된 3차 법원 경매 과정에서 '조원 그린'이라는 회사에 낙찰되자 포교원 신도들이 도량 수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1650평 규모인 성원주차빌딩에는 9년전 개원한 통도사부산포교원내에 대광불교대학, 한나래문화재단, 부산불교거사림회, 붓다의 메아리 등 50여개의 불교관련 사무실이 들어서 있다.

이들 신행단체들은 법원 낙찰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도량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을 구성하고, "문화예술제, 무의탁노인돕기, 무료급식 등 각종 신행활동의 보금자리이자 법회공간인 이 곳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통도사부산포교원은 8일 최익두 부산시공무원 교육원장을 대책위원장으로 김창석 대광불교대학 학생회장, 박병천 한나래문화재단 감사 등 10 여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앞으로 대책위원회는 도량 수호를 위해 신행단체의 힘을 결집하고 낙찰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함한 행정적 대응에 적극 나서며 불도량을 지키는 신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50여개의 불교 신행단체와 25개의 상가가 입주해 있는 성원주차빌딩은 (주)성원이 98년 7월 부도처리됨에 올 8월 30일 1차 경매, 10월 4일 2차 경매을 거쳐 8일 3차 경매에서 88억에 낙찰 됐다.

천미희 기자

'김태복 후원회' 발족

봉은사 · 봉선사서 잇달아 법회

김태복 장군의 명예 회복을 위한 후원회가 8일 동산반야회 3층 대법당에서 발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봉선사 주지 일면스님〈봉선사 주지 관련 인터뷰 4면〉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부장 상운스님, 강화 선원사 주지 성원스님,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 김대중 포교사단 단장, 국방부 정선진 법사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복 소장은 "개인 횡령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군법당 불사 보시금 관련 부분은 다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으로 되돌아갔다"며 "억울한 누명을 벗는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불교 전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복 장군 후원회는 12일 강화 선원사를 시작으로 15일 강남 봉은사, 12월 15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후원 법회를 열 예정이이다.

김주일 기자 jjkim@buddhapia.com

동여수 노인복지관 14일 개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4일 오전 11시 동여수노인복지관 개관식을 갖는다. 여수시로부터 위탁받아 복지재단 항일암 지부에서 운영하게 될 동여수노인복지관은 연건평 502평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건축됐다. 1층에는 사무실과 건강관리실 주간보호소 자원봉사자실, 2층에는 강당 목욕탕 노인휴게실, 3층에는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이미용실 등이 설치, 운영된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국민카드사 임직원의 후원을 받아 서울노인복지센터,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등 서울소재 11개 복지시설에 쌀을 지원한다. 국민카드사 임직원들은 '농협 쌀 나누기 운동'에 동참하고 결식아동 및 노인돕기 위해 쌀 20kg 100포배를 후원했다. (02)737-6966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참여불교운동 새모델 제시했다"

경불련 10주년 토론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운영위원장 김동흔)은 7일 경실련 강당에서 '경불련 10년의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창립 10주년기념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흔 운영위원장의 주제발제에 이어 이영철 재가연대 사무처장, 이정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국장, 이정호 녹색미래 사무처장, 정은일 전국실직노숙자 종교시민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동흔 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경불련의 창립으로 불교계가 현실문제에 눈을 뜨고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각 분야에서 생겨난 불교시민단체들이 사회 및 불교의 민주화와 생태계 보전 등 참여불교운동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경불련이 전문가 양성, 재정문제 해결, 회원 확보 등을 통해 봉사활동 등 제반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역량을 갖추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불련은 13일 오후 6시30분 종로구청 강당에서 경불련 10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기념식은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건립을 위한 한국전통사찰 음식만찬'과 경불련 10년사 영상물 상영, 감사패 증정 등의 순서로 마련된다. (02)3147-2600 김재경 기자

보리수마을 내달 경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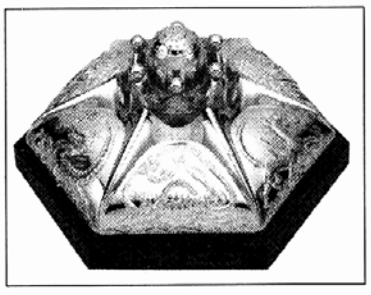
불교실버타운 양양 보리수마을이 다침내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월 농협중앙회가 누적된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제기한 경매신청에 대해 춘천지법 속초지원이 경매 개시를 결정, 12월중 1차 경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보리수마을은 80억원대에 이르는 농협 채권을 비롯해 입주자들의 입주 보증금 등 복잡한 채권에 얽혀 있어 현재로서는 입주자들의 채권 배당 정도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리수마을 110세대 입주자들의 입주 보증금은 60억원에 이른다.

오종욱 기자

한가지소원을 이루시는

소원성취 명당 육기(六氣)방

특허받은 명당 육기방



옛부터 금은보화와 육방수호신장(守護神將)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습니다.
명당육氣방에 각인된 좌청용(左青龍) 우백호(右白虎) 남주작(南朱雀) 북현무(北玄武) 천하(天下) 지하대장(地下大將)의 육방수호신장(六方守護神將)이 모든액운으로 부터 항상 지켜 줄것이며 소원성취 안전운행 사업흥왕 불화방지 가내화합 시험합격 악귀퇴치 극락왕생 선신수호 삼재예방 관재소멸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에 만복(萬福)을 가져다 주며 사업의 성공과 아울러 천지(天地)간의 좋은 氣를 받아 사기(邪氣)를 막아주고 자손만대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만사형통 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주지스님 친견 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분에게 사용하십시오.

1. 사업을 시작 하시는 분
2. 사업이 잘 안되시는 분
3. 하시는 일들이 잘 안풀이시는 분
4. 가정에 불화와 우환이 많으신 분
5. 소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
6. 돈이 새어 나가고 융통이 안되시는 분
7. 공부를 안하고 자녀가 말성을 부리는 분
8. 부부화합이 잘 안맞어 힘드시는 분
9. 집터나 묘터가 안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10. 위험한 일이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분
11.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
12. 관재구설과 액운이나 삼재로 시달리는 분
13. 수험생 합격 기원을 위하여 미리 준비 하십시요.

※ 종지 않은 사주팔자라 할지라도 노력하면 좋은 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 명당육기(氣)방 051) 865-9933
864-7878
일본지사 : 06-6741-1923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를 보십시요.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가격 : 1호 10만원, 2호 20만원, 골드 1호 30만원, 골드 2호 40만원
흑육 氣방, 집터, 묘지, 조상합동묘, 합동납골묘 전용 강력한 3천 카우스 25만원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